

## 儒敎와 러시아 사회사상\*\*

쿠즈네트소프 (V.S. Kuznetsov)\*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인 러시아는 중국인민의 정신생활에 전통적 관심을 가졌는 바 그것은 중국이 여러가지 이유로 세계여론의 초점이 되었던 19세기에 그 절정에 달했다.

1865년 철학자이며 문학평론가인 N.V.셸구노프는 <중국의 문명>이라는 논문을 내놓았는데, 그 논문에서 그는 유교가 중국의 사회적, 정치적, 정신적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공자도 중국의 전통도 개인의 독립이 권위에 의하여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질서와 발전의 힘과 보증을 제공하지 못한다. 사회적 발전은 이 상황하에서는 불가능하다.”<sup>1)</sup> 그의 가정을 더 구체화하기 위하여 N.V. 셸구노프는 특히 질서와 전통의 권위를 더욱 강조한다.“공자는 소위 질서의 파괴를 허용치 않는 관대한 보수주의자였으며 전통과 관계가 있었다.”<sup>2)</sup>라고 그는 말한다. 이 철학적 체계에서는 어떠한 사회적 발전도 전연 불가능했다. N.V.셸구노프가 계속 언급하듯이 “공자는 오로지 뒤를 바라보도록 가르쳤다.”<sup>3)</sup>

유교의 관습은 일반적으로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셸구노프가 주장하듯이 중국인민의 사회적 경제적 생활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이 점에 있어서 다른 국가에도 교훈적이다. “독자는 농업에 대한 관심과 인민을 교육

\* 러시아 과학원 극동연구소 종교연구위원장

\*\* 이 논문은 퇴계학 연구원 『퇴계학보』 제68호(1990년) 게재 논문임.

1) 셸구노프 N.V. 중국의 문명, 1865, 10, 작품들, 1권 1895, p.136.

2) 같은 책, p.137.

3) 같은 책.

시키는 것이 유교 관습의 나쁜 면이라고 내가 부르는 이유를 듣고 놀랄  
 린지 모른다. 그러나 유교제도의 폐단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기에 있다. 공자가 그의 인민을 가르친다는 것, 그것에는 나쁜 것이  
 없다. 폐단은 그각 그들의 아버지와 보호자가 되고자 하며 곡식을 씨뿌  
 리고 거두어 드리는 명령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하게 하  
 는 가부장적인 관심을 베푸는 데 있다.”<sup>4)</sup>

유교철학은 “중국에서 가족의 전체계와 국가생활의 기초를 놓아 주고  
 있다.”라고 셸구노프는 요약하고있다. 그러면 이 체계의 지붕밑에는 무  
 었이 있는가? ‘전제주의와 사회적 불의’라고 셸구노프는 대답한다.<sup>5)</sup>

1888년에는 세인트 페테스부르크 대학 교수 S.게오르기에프스키의  
 저서 ‘중국생활의 원리’가 출판되었다. “중국은 수천년의 역사를 지니고  
 존재하여 왔으므로 어떤 존재의 원리가 있게 마련이고 이 원리들은 공  
 자와 그의 학파에 의하여 정립되었다”라고 게오르기에프스키는 믿고 있  
 다.“<sup>6)</sup>

게오르기에프스키의 저서는 많은 러시아 사회사상가들의 공명을 얻었  
 다.

I.수고르스키는 공자의 있음직한 중요성에 대하여 반론을 펴면서 게  
 오르기에프스키의 저서에 대한 서평을 썼다. I.수고르스키는 공자가 노  
 자보다 더 중요하고 우월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의심을 표명했다.<sup>7)</sup> 더  
 구나 I.수고르스키가 믿는 바와 같이 유교는 중국민의 정신적 필요에  
 부적합했기 때문에 중국 역사에 부정적인 역할을 했다. 공자는 현신적  
 인 보수주의자였기 때문에 고스란히 완전한 조상의 家系 질서에만 관심  
 이 있었고 세속에 얽매어 버렸다. 이 인간학은 중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

4) 같은 책, p.138.

5) 같은 책, p.139, 153

6) 게오르기에프스키 세르게이, 중국생활의 원리, 세인트, 페테스부르크, 1888,  
 p.284

7) 수고르스키 I. 중국에 관한 새로운 책, S.게오르기에프스키, 중국생활의 원리,  
 세인트 페테스부르크, 1888, 라스키 베스트니크, 1888.12, 199권 p.312.

끼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인간학은 중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었다. 중국민들은 점점 자기자신을 숭배하게 되었다. 그러하니 그들이 조만간에 강력한 국가를 근본부터 뒤흔든 것이 한 번뿐이 아닌 사회적 병리에 의하여, 즉 언제나 보다 나은 것의 선구자가 되려 하여, 전국민을 갑자기 지배하는 무시무시한 절망에 의하여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는가?<sup>8)</sup> 기독교 신앙 이외에 그것을 치유한 방법은 없다고 I.수고르스키는 결론을 내린다.<sup>9)</sup>

I.톨스토이도 또한 게오르기에프스키에 대하여 기독교 사상이 우세한 국가로서의 중국에 유교의 중요성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sup>10)</sup>

그의 의견에 의하면 중국민의 생활의 모든 원리는 이 책에서 한가지 기본원리로 압축할 수 있는데 그것은 즉 부모에 대한 효도로서 유교의 핵심이다. 그러나 서평자가 주장하는 바로서는 ‘유교도 그 자체가 일종의 종교로 많은 사제들이 예배를 집전하는 바 그들은 계율의 준수를 감시하도록 촉구되고 있다.’<sup>11)</sup> 톨스토이는 이렇게 적고 있다.

저자가 우리를 납득시키려 하는 바와 같이, 유교는 ‘너의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단 한가지의 계율을 토대로 하는 공리주의적 종교로서 잘조직된 일단의 사제들(행정장관과 검열관)이 이 종교의 의식절차를 준수하는가를 감시한다.

국가의 구조에 관해서 유교는 제정일치의 존재를 정당화 시킨다고 I.톨스토이는 믿고 있다.<sup>12)</sup>

서평자는 S.게오르기에프스키가 구라파 사람들에게 한 실제적인 도덕적 충고에 관해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I.톨스토이는 말한다.

8) 같은 책, p.313.

9) 같은 책.

10) 톨스토이I.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새로운 책—베스트니크 에우로피, 1888, p.882.

11) 같은 책, p.892.

12) 같은 책.

구라파 문화에서 무엇인가를 빌려와야 할 자는 중국이 아니라, 오히려 구라파가 중국에서 무엇인가를 배워서 중국인들에 의해서 발견된 초석의 원리, 즉 부모에 효도하라는 교훈을 구라파 자신의 존재의 기초로 삼도록 주장함으로써 著者は 그의 研究를 결론짓고 있다. 우리는 우리도 역시 이 원칙을 소중히 여기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달리 이해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우리는 개인의 번영을 바래서, 그리고 벌이 두려워서 부모에 효도하는 것을 받아드릴 수 없다. 더구나 이 계율과는 별도로 우리는 또 하나의, 이보다 훨씬 우월한, 계율이 있으니 전체가 특수보다 우월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만일 저자가 이 원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한결같이 재확인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반대한다면, 우리는 부모에 효도하라는 원리가 중국의 일상생활에서 더 잘 뿌리박지 못하고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노라고 대답할 것이다……”<sup>13)</sup>

S. 기에르기에프스키는 “(비록 유교적 뿌리에서만 확립된 것이긴 하지만) ‘효도는 그 자체로서 어떠한 국가에나 안정되고 견고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I. 톨스토이에게 대답함으로써 자기의 견해를 방어했다.”<sup>14)</sup> 러시아에서 가정 생활이 쇠퇴하고 있었기 때문에, S. 게오르기에프스키는 가족의 원리가 가족이 살아 남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던 중국의 역사적 경험을 대중에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sup>15)</sup>

저명한 철학자인 V.S. 슬로비에프도 역시 S. 게오르기에프스키의 저서가 발견한 것들을 중국인의 생활방식과 생의 목적을, 즉 중국인의 이상을 설명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그의 저서에 반응을 보였다.<sup>16)</sup>

유교는 중국민의 사회적 정신적 발전에서의 어떤 단계에서의 논리적

---

13) 같은 책, p.893.

14) 게오르기에프스키 S, I. 톨스토이 백작과 중국생활의 원리, 세인트 페테스부르크, 1889, p.19.

15) 같은 책.

16) 슬로비에프 V.S. 中國과 유럽, 블라디미르 세르게예비치 슬로비에프, 세인트, 페테스부르크, 6편, p.98.

산물로서, V.S. 솔로비에프가 ‘시노이즘’으로 정의한 바 있는 그들의 민족 심리학에 있어서의 重要性의 변천이다. “노자철학이 치명적인 극단성을 드러냈을 때, 이 신축성 있는 민족의 천재는 민족고유의 生의 원리와 실질적 존재의 상황간의 타협을 요구했다. 추구된 타협은 공자의 가르침에서 발견되었다.”<sup>17)</sup>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타협은 초기의 종교적 신념과 사회적 정치적 생활의 상황들을 통하여 이룩되었다. 이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의 통합은 유교의 사회적 윤리학의 극히 효과적인 요소, 즉 효도의 미덕으로 귀착되었다. 사회 윤리학의 이 범주는 중국의 제국적 국가구조와 한민족의 사회적 행위에서 우세했다.

효도의 계율은 가족내의 관계에서부터 국가기관과 개인간의 관계에 이르기까지의 중국의 사회생활의 모든 단계의 조정자로서의 지위를 확립했다. 이것은 유교적 사회윤리학의 사회적 보편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V.S. 솔로비에프는 결론짓는다. “그는 (공자) 고대의 종교와 새로운 사회적, 정치적 생활을 도입하여 본질에 있어서는 전통적이며 보수적이고, 형식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실제적 윤리학의 하나의 체계를 세웠다. 그는 고대 중국의 제식을 그 근저에 효도를 놓음으로써 더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그는 바로 이 원리를 중국 제국의 순 사회적, 정치적 질서의 초석으로 삼았다.”<sup>18)</sup> V.S. 솔로비에프는 유교의 계율인 일반적인 도덕법칙의 미케니즘과 이 계율의 영향을 받은 중국 사회생활의 변화과정을 발견하였다. V.S. 솔로비에프에 의하면 공자는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고 믿었다. 즉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와 비슷한 존재들 사이에서 살고 있으며 種으로서의 그의 생물학적인 존재는 그와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 즉 사회적 상황에 달렸다는 것이다. 효도의 원리를 기초로 한 가족은 사회생활의 본래의 세포가 되었다. V.S. 솔로비에프가 지적한 바에 의하면 “인간은 오직 사회적 존재로서만 그의 존재와 번영을 이용할 수 있다. 가족은 사회생활의 기본적 형식이

---

17) 같은 책.

18) 같은 책.

다. 반면에 가족은 효도 덕분에 성립되는 것이다.”<sup>19)</sup> V.S. 솔로비에프는 효도가 중국 사회생활 전반의 도덕적 배경이 되는 것으로 귀착되는 과정을 정의할 때의 이 복잡한 개념을 설명하지 않는다. “효도는 가족이라는 불씨로부터 국부의 왕좌에 이르기까지 수면 위의 잔물결처럼 퍼져서 유교적, 즉 중국의 윤리학의 정수가 되었다.”<sup>20)</sup> 그것은 많은 이유 때문에 보편적인 것인 척할 수 없다고 V.S. 솔로비에프는 믿고 있다. 왜냐하면, 보편적 사랑의 계율을 지닌 기독교적 윤리와 대조해 볼 때 유교의 윤리는 공리주의적이고 선택적이며, 전체로서의 인민이 아닌 이런 저런 類의 사람들에 관해서 어떤 책임들만을 지게 되기 때문이다.<sup>21)</sup>

더구나 “보편적 사랑의 사상과 자기희생의 사상은 공자의 추종자들에게는 똑같이 혐오스럽다.”<sup>22)</sup> 공자는 극복되어야 할 惡의 목록에 있어서는 불완전하다. “유교의 가르침에는 의식과 예식의 과장된 중요성과 더불어 우리는 거짓과 잔인을 경멸하는 말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V.S. 솔로비에프는 말한다.<sup>23)</sup> 마침내 중국인들 자신들은 그들의 공식적 민족 국가 종교와는 별도로 존재의 다른 방법들을 탐색하고 있다.<sup>24)</sup> V.S. 솔로비에프에 의하여 언급된 이 방법들 가운데에는 물질적, 정신적 수단이 똑같이 있다. 첫째 경우에 그것은 마약 흡연이고 두 번째 경우는, 도교와 불교로서 둘 다 유교와는 성질이 다르다.<sup>25)</sup>

(유철준 譯)

---

19) 같은 책, p.126.

20) 같은 책, p.129.

21) 같은 책, p.131.

22) 같은 책, p.134.

23) 같은 책, p.130.

24) 같은 책, p.140.

25) 같은 책.